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

글 김은 KFPA 조사연구팀 과장



최근 10년간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중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목할 만한 화재사례를 살펴보자 한다.

〈표 1〉 최근 10년간 다중이용업소 주요 화재

화재발생일시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 사고명	화재 원인	수용품
2005.09.02. 16:03	사망5명, 부상53명	수성시티월드 옥돌사우나	유증기폭발 추정	대구 수성3가
2006.04.25.	사망1명, 부상7명	서초구 실내 사격장	화약불티	서울 서초
2006.07.19.	사망8명, 부상12명	송파 N고시원	방화추정	서울 잠실동
2007.12.26. 17:18	사망5명, 부상2명	무허가 성인오락실	부주의(용접)	안산시 고잔동
2008.04.08. 04:30	사망5명	제주도 음식점(횟집)	전기적요인	제주 삼도2동
2008.07.25	사망7명, 부상11명	타워고시텔	방화	경기도 용인
2008.08.20	사망3명(소방관)	대조동 나이트클럽	전기적요인	서울 대조동
2008.10.20. 08:15	사망6명, 부상7명	논현동 고시원	방화	서울 논현동
2009.01.14	사망8명, 부상1명	상하이노래주점	전기적요인	부산 남형동
2009.11.14	사망15명, 부상1명	가나다라 실탄사격장	화학적요인	부산 신창동
2012.05.05	사망9명, 부상33명	시크노래타운	전기적요인	부산 부전동
2013.02.17(일) 20:26	인명피해 없음. 11개 건물, 23개 점포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	방화	서울 인사동

* 서초구 실내사격장 화재는 방재와 보험 115호(2006년 9~10월), 송파 N고시원 화재는 방재와 보험 116호(2006년 11~12월), 타워고시텔 · 상하이 노래주점 · 가나다라 실탄사격장 화재는 방재와 보험 136호(2010년 3~4월), 시크노래타운 화재는 방재와 보험 146호(2012년 가을호)에 게재되어 있다.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1.7. 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음식점, 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암마시술소 등)을 말한다.

1. 대구 수성시티월드 옥돌사우나 건물

가. 일반사항

- (1) 발생일시 : 2005. 09. 02. 16시 03분
- (2) 발생장소 : 대구 수성구 수성3가
- (3) 건물현황 : 지상5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1,764m²
지층 보일러실, 1층 미용실, 2~3층 목욕탕, 4층 찜질방, 5층 헬스클럽
- (4) 화재원인 : 지하보일러실에서 유증기폭발 추정

나. 화재현황

오후 4시 3분께 대구시 수성구 사우나 5층 건물 지하에 있는 경유를 쓰는 보일러실에서 폭발 사고와 함께 불이 났다. 지하에서 시작된 불은 1층 미용실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2층 여탕, 3층 남탕, 4층 찜질방을 비롯해 5층 헬스장까지 삽시간에 번져 화염에 휩싸이면서 건물 전체(1,764m²)를 모두 태웠다. 처음 폭발을 시작으로 10여차례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1층 콘크리트 바닥이 내려앉고 건물 벽체, 1층 천정 등 곳곳이 무너졌으며 유리창문이 모두 파손되었다.



[그림 1] 화재현장 모습(한겨레 인터넷 뉴스, 2005.9.2)



[그림 2] 유리창과 건물 외벽의 설치물들이 대 부분 심각하게 파손된 가운데 오른쪽 유리창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오마이 뉴스, 2005.9.3)



[그림 3] 사우나 폭발 현장. 건물 1층에 세 워두었던 자동차가 진화 막바지에도 계속 불길에 휩싸여 있다.(오마이 뉴스, 2005. 9.3)

한 목격자는 "목욕탕 인근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목욕탕 건물 지하가 온통 화염에 휩싸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등 이수라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지하에서 발생한 불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5층으로 번지면서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 불이 지하에서 발생했다면 1~4층을 거쳐 서서히 5층까지 번져야 하지만 이번 화재는 중간층을 넘어 맨 위층으로 급속히 퍼졌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들은 "폭발로 인해 일반 화재보다 더 강력한 불길이 산소가 많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통로 등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위층까지 확산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통로처럼 압력이 낮은 곳은 폭발로 인해 갑자기 큰 압력이 밀려오면 연소통 역할을 해 화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통로를 타고 위층까지 번진 불은 꼭대기 천장을 만나면 그때부터 옆으로 번진다는 설명이다.

진화가 완료된 목욕탕 건물에 대한 1차 감식 결과에서도 피해가 집중된 지하와 1층을 제외하면 중간

층 보다는 5층이 피해가 더 컼고 계단쪽에 화재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해상황

건물은 목욕탕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인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피해가 커다. 엄청난 폭발에 이은 큰 불로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목욕탕 주인 등 5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2~3층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10여명은 갑작스런 폭발과 큰 불길에 놀라 건물에서 뛰어 내려 부상했는가 하면 일부는 알몸으로 탈출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 게다가 목욕탕 건물의 유리창 파편 등이 무려 100여m나 날아가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파편에 맞아 다치기도 했다. 사망 5명, 부상 53명, 건물은 전소되었다.

폭발 과정에서 목욕탕 건물은 물론, 주변상가와 주택 등 10여채의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파편이 곳곳으로 날아들어 도로 등 사고현장 일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을 이뤘다. 목욕탕 건물 앞에 서 있거나 지나던 차량 20여대가 폭발에 따른 불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타거나 창문 유리가 박살났다. 이같은 폭발 및 화재로 인근 지역까지 정전이 됐으며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주변 도로가 한 때 교통 대란이 일어났고 20가구 주민들이 인근 동사무소에 대피해 밤을 세웠다.

2. 안산시 무허가 성인오락실 화재

가. 일반사항

- (1) 발생일시 : 2007. 12. 26. 17시 18분
- (2) 발생장소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3) 건물현황 : 5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 (4) 화재원인 : 부주의(용접불티로 인한 실화)

나. 화재현황 및 발화원인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오락실 철문 잠금장치 용접을 하던 중 용접공의 실수로 불티가 벽면과 천장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되었다. 불이나자 용접공은 혼자 10여분간 불을 끄려다 여의치 않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고 건물의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4, 5층 모텔 손님들도 건물에 연기가 차오를 때까지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

3층의 오락실은 100여m²의 공간에 성인 오락기 40여대가 다닥다닥 놓여 있었고 내부에는 비상구는 물론 창문도 없었다. 게다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출입구의 안쪽 문은 불투명 유리로 만들어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한동안 불이 난 줄도 몰랐다. 오락실에서 불법게임을 하던 손님들도 하나뿐인 출입문이 불길에 휩싸인 후에야 화재사실을 알고 대피하려 했지만 출입구는 막혀 있었고 유독가스는 차올라 오락실에 있던 7명(사망5명, 부상2명)이 변을 당하였다.

불법오락실이다 보니 방염처리는 물론, 기본적인 소방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락실 벽면에는 섬유로 만든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그 안은 스티로폼 내장재로 차 있어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그림 4] 오락실 출입문 앞 복도(사진 중앙에 보이는 옥내소화전을 화재진압에 이용함)(연합뉴스, 2007.12.27)



[그림 5] 오락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바라봄(노컷뉴스, 2007.12.26)



[그림 6] 오락실 출입문(외부 복도 방향에 서 봄)(노컷뉴스, 2007.12.26)

다. 피해상황

5층 모텔 투숙객 등 50여명은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오락실 손님 4명과 오락실 업주 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이 업소 종업원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3. 제주도 음식점(횟집) 화재

가. 일반사항

- (1) 발생일시 : 2008. 04. 08. 04시 30분
- (2) 발생장소 : 제주시 삼도2동
- (3) 건물현황 : 3층, 철근콘크리트조
- (4) 화재원인 : 전기화재 추정

나. 화재현황 및 발화원인

소방대가 도착하였을 때 1층 식당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기와 화염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분출되고 있었고, 2,3층은 불꽃이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2층 유리창을 파괴하자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었다. 출동 10여 분만에 1차 불길을 잡았지만 잔불을 정리하는 도중 3층에서 숨진 일가족을 발견했다. 건물 내부는 목재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1층에서 3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횟집 내부 가운데 설치된 계단뿐이어서 화재가 난 후 일가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음식점 주 출입문 옆에 있는 카운터 벽면 아래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탄 점 등으로 미뤄 일단 이곳에서 발화된 전기화재로 추정하였다.

다. 피해상황

3층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5명(홍모(44)씨와 부인 천모(41)씨, 18살과 15살 딸, 10살 아들)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그림 7] 화재 진압하는 제주소방서 대원들
(뉴시스 인터넷 뉴스, 2008.4.8)



[그림 8]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시 삼도2동의 횃집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 깨어진 창문의 유리 등을 떨어내고 있다.(연합뉴스, 2008.4.8)



[그림 9]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시 삼도2동의 횃집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2008.4.8)

4. 논현동 고시원 방화 난동

가. 일반사항

- (1) 발생일시 : 2008. 10. 20. 08시 15분
- (2) 발생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3) 화재원인 : 방화

나. 화재현황 및 발화원인

2008년 10월 20일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2003년부터 거주하던 범인이 3층 자신의 방 침대에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고시원에 불을 내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들을 무참히 짓러 살해 및 중상을 입혔다.



[그림 10~11] 화재로 까맣게 탄 고시원 내부. 최초 발화지점이 있던 B구역은 전체가 겸게 타거나 그을린 모습이었다. 화재가 난 맞은편 구역의 고시원 내부는 당시 훈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여주듯 개인 물건들이 방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다. (연합뉴스, 2008.10.20)

다. 피해현황

고시원의 3개 층이 일부 전소했으며 피해자는 중국동포를 포함 사망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범인은 방화,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5. 서울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 화재

가. 일반사항

(1) 발생일시 : 2013. 02. 17. 20시 26분

(2) 발생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음식점

(3) 건물현황 : 지상3층, 연면적 598 m², 철근콘크리트조

* 목조건물 밀집지역으로 인접 건물로 화재 확산

(4) 화재원인 : 방화 용의자가 육미식당 2층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서 의류 및 종이류에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 방화한 것으로 추정



[그림 12] 화재발생 '육미' 및 인접점포 화재 전 사진(네이버지도, 2012.2.8.)

[그림 13] 인사동 식당 화재 사고지점(연합뉴스, 2013.2.17.)



[그림 14] 화재피해 점포 상황 (도봉소방서 블로그, 2013.2.18.)



[그림 15] 화재발생 '육미' 및 인접점포 화재 후 사진 (네이버 블로그, 2013.2.18)

나. 화재현황 및 원인

건물 1층 선술집 ‘육미’에서 술을 마시던 방화범은 이 건물 2층 종업원 탈의실에 올라가 폐지와 옷가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목조건물 및 판넬 등으로 개조된 건물들이 밀집하여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되어 일대 점포 23곳을 태우고 약 1시간 35분 만에 진화되었다. 화재 당시 LPG 용기, 변압기 폭발도 급격한 연소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다. 피해상황

단순연기흡입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목조건물 밀집지역으로 불길이 인접한 건물에 급격히 번져 11개동 23개 점포가 연소되었다. 재산피해는 4.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불길이 화재가 난 건물 위로 걸친 전선으로도 옮아붙으면서 한국전력이 화재 발생지점 일대 전력을 차단, 주변 건물들이 정전됐다.



[그림 16] 음식점 앞 전선에 불이 붙음(동아일보, 2013.2.18)

6. 위험특성 및 예방대책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영세성이 심화되어 있는 업종이 많아 영업이익을 위하여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장애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소홀,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사용 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을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운영자는 자발적인 화재안전의식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피난 및 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경로의 확인 등으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